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미가서-

## 평강의 왕 (미가 5장 5 - 15절)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미가는 농촌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도시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심각하게 느끼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죄의 심각성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도시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열국의 침략을 받아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쇠고랑을 차고 신하들이 뒤를 이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때 비로소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가는 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라고 합니다.

본문은 악한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고 교회가 세워져서 은혜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 1.교회가 받을 은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5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는 모든 일에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보통 평강이라는 말로 이해하지만 실상은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샬롬은 모든 좋은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 사업하는 사람이 번영하는 것, 농사짓는 사람이 추수할 것이 많은 것,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 등 이런 것 모두가 샬롬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는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이 일어나 그들을 치게 되는데,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은 많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지도자를 말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일어날 영적 지도자들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지도자가 될 터인데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들이 세상을 치게 되는데 교회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6절).

지도자들은 칼로,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원수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민족의 벽, 문화의 벽, 사회 계층의 벽, 종교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앗수르와 니므롯, 곧 바벨론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지만 마지막에는 복음이 승리하여 저들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7절)는 교회를 말합니다. 남은 자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극히 적은 수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세상으로 휩쓸려 갈 때 야곱의 남은 자는 마지막에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계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7절), “수풀의 짐승들 중의 사자 같고

양 떼 중의 젊은 사자 같아서”(8절).

미가 선지자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이슬과 단비와 사자로 비유했습니다. 이슬과 단비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삭막한 광야로 그곳에 하늘에서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므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기다리고 의지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만을 찾고 기다려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계 5:5). 사자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 5:4). 성도는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망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야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8절).

세상에는 신자보다 불신자의 수가 훨씬 많을 뿐더러 신자 가운데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름뿐인 신자(nominal christian)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구에서는 교회는 가지도 않으면서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마치 세금처럼

내며 자신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네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하시더라”(9절).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전투에서 이긴 것과 같이 성도가 기도의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 2.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

“네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네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11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군마나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10절).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빌미로 온 세상을 휘두르는 듯하지만 이것은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일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또 복술을 네 손에서 끊으리니 네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12절). 그 날에는 또한 복술과 거짓 신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에서 멸절하리니 내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13절).

주상은 기념비를 말합니다. 기념비는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갇으리라 하셨느니라”(15절). 교회를 폄박한 국가,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단비를 맞으며 사자같이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열린 바자

## 9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우리 교회는 풍성한 축복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2003년도 열린 바자를 9월 3일(수)부터 5일(금)까지 3일간 열기로 하였다.

그 동안 우리교회의 바자는 모든 성도들이 이웃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물품 등을 옥합을 깨뜨리는 심정으로 준비하여 왔으며 바자 준비위원회(위원장: 김광신 장로)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금년 바자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여 은혜 중에 준비되도록 힘써 달라고 전하였다.

금년도 바자는 9월3일(수) 수요일 1부 예배를 마친 후 교회 앞뜰에서 개장예배를 갖고 바자를 시작하게 되며 성도들이 사랑으로 기증한 물품과 위탁품, 농, 수 특산품을 위

주로 진행하게 된다. 자세한 바자준비위원회 조직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간>

- 9.3(수) 12:30 - 18:30
- 9.5(금) 10:00 - 18:00
- 9.4(목) 10:00 - 19:00

### <장소>

서울교회 앞뜰, 1층, 8층 만나홀

### <취급품목>

- 1)가정품(상품화 할수 있는 모든 것)
- 의류, 잡화, 기구, 가전제품, 그릇, 장난감, 학용품, 악기, 서적, 테이프, 컴퓨터 및 주변기기, 운동기구, 침구 및 수예품, 식품, 부종산, 회원권, 상등권, 증권, 도자기, 미술품, 귀금속, 기타
- 2)위탁상품과 농,수 특산물

### <바자 조직>

- 대회장: 이종윤
- 위원장: 김광신
- 지도: 윤영국
- 기획부: 부장 - 임상현 차장 - 전기섭
- 재정부: 부장 - 오정수 차장 - 신용식
- 시설부: 부장 - 하영수 차장 - 조정식
- 판매관리부: 부장 - 정병무 차장 - 박두영
- 섭외부: 부장 - 김세재 차장 - 최학인
- 홍보부: 부장 - 노송성 차장 - 박정신
- 1점포 - 하영수 최양진 이인숙
- 2점포 - 전기섭 최홍철 이지혁
- 3점포 - 정병무 김유경 박미혜

- 4점포 - 임훈규 김태기 최치순 박미혜
- 5점포 - 성준경 최학인 김중근 최소희
- 6점포 - 노송성 장영일 김장란
- 7점포 - 이영기 김영준 박두호 이상호 진경옥
- 8점포 - 홍성주 강낙훈 김정운
- 9점포 - 이관규 서춘식 신기숙
- 10점포 - 이복규 민순구 윤찬오 이원영 권장환 한영순
- 11점포 - 왕경래 노문환 이양철 김혜영
- 12점포 - 김광신 이병생 임상현 최광석 위성남
- 13점포 - 김세재 김복숙 김영식 김신영
- 14점포 - 오정수 정동호 우경자
- 특판점포 - 민순구 이남성 이애순

### 장로가정 탐방

## 무익한 종일뿐입니다

이용선 장로 박순봉 권사 가정(4교구)



아내 박순봉 권사님과 함께 청일점으로 은빛 찬양대를 섬기시는 이용선 장로님은 올해 78세로 1927년 황해도 송화에서 출생하셨다.

박순봉 권사님과는 1945년 고향의 덕안리 교회에서 결혼하였는데 그 교회는 박순봉 권사님의 부친께서 세우신 교회였다. 슬하에 3남 1녀, 자부와 사위 손자녀 8명, 증손녀 1명이 있다.

이 장로님은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나 결혼을 하신 후 신앙심이 깊어졌고 박순봉 권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젊은 시절부터 찬양대를 섬기셨다고 한다.

이용선 장로님은 서울교회 설립이후 사무국장으로 봉

직하셨고 1973년 장로 장립을 받으신 후 여러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삶의 전부가 다름없는 시간들을 서울교회와 함께 보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 보면 자신은 무익한 종일뿐이었다고 겸손의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당신의 삶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만 믿음의 덕을 세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이 장로님은 이종윤 목사님을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알았다. 40여 년 전 어스름한 신당동 길에서 책을 읽으며 내려오는 청년 이종윤 전도사를 우연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모습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 복음에 관한 열정과 사랑이 남다르고 중등부를 지도할 때부터 70인전도대를 조직하여 왕성하게 일하는 이종윤 목사님을 범상치 않은 주의 종으로 생각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다.

이 장로님은 서울교회에 대해 이렇게 회고하신다. "1991년에 설립되고 1년이 채 안되어 이미 교회의 행정과 모든 기관들이 안정되어 규정집과 요람이 발간되었다. 하나님께서 서울교회에 대한 계획이 얼마나 급하신지... 성도들 역시 주님의 뜻을 받들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향해 나갔다." 요즘 들어 새로운 성도들의 모습들이 부쩍 눈에

## 다락방 모임 8월중 방학 9월 첫 주에 다시 모인다

교회는 8월 한 달간 폭염으로인해 피차간에 가정 방문하는 일이 어려워 한 달간 다락방 모임을 방학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각 교구일꾼들은 방학 중에도 일주일에 한번씩 전화심방을 하여 다락방과 교구 성도들의 안부와 신앙상태 그리고 유교사항 등을 확인하여 각 교구담당 교역자들에게 보고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계속하게 된다.

## 70인 전도대 -8월 한 달간 수요일, 토요일은 목요일과 함께 전도-

70인 전도대는 교회 각 기관과 여름철 행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8월 2일(토)부터 8월 30일(토)까지 기존 수요일 오후 2시와 토요일 오후 3시에 남선교회, 여전도회 주력으로 전도하던 시간을 목요일 오전 10시에 모이는 축호 전도팀에 합류하여 전도기로 했다.

청실 아파트를 은마 아파트에 이어 2차 주력전도대상지로 삼고 각동에 담당 전도팀을 확정 배정 했다. 70인 전도대에서는 은마, 청실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의 영혼구원과 영적 전채터로 파송된 대원들을 위해 전성도의 배전의 기도후원을 요청하고 있다.

## 엘리아 남선교회 가족수련회 8월1-2일 양일간

우리교회 엘리아 남선교회(회장: 이영기 장로)는 회원과 가족이 함께 하는 가족수련회를 해병 청룡부대와 인근 강화도에서 갖는다. 엘리아 남선교회는 이번 가족수련회를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예정이며 방문하게 되는 군부대에서 선물을 준비할 예정이다. 출발은 8월1일(금) 오후 7시 교회에서 하며 수련회비는 1인당 1만원이다.

된다. 나날이 부흥되는 서울교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마음이 뿌듯해온다. 다만 한 가지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처음 사랑을 잊어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예베소 교회와 같은 오류를 범하지 말고 모두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시대와 타협하지 않는 항도적인 교회가 되는데 힘쓰라는 것이다.

박순봉 권사님은 탈북난민을 위한 UN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위해 2년 동안 거의 매일 지하철과 시장 등지에서 10만 여명에게 서명을 받으신바 있는데 박 권사님께서 이토록 탈북난민에 집착하는 것은 당신의 고향이 북한이고 또한 독립운동을 하던 오빠의 애국심과 신앙심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용선 장로님과 박순봉 권사님은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리", 찬송가 249장과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가정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다.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서울교회를 함께 세우고 홀연히 주님의 품에 안기신 신앙의 동지들. 자랑스럽고 존경했던 유윤진 장로님, 나희주 장로님, 박철훈 장로님, 이 장로님은 요즘 그 분들이 너무 보고 싶으시다. 그래서 자신도 믿음의 경주를 마친 후 찬송 속에 하늘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 정리: 허숙 (편집부)



**윤영국 목사(중등부 지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사 55:2-3)

수련회는 구별된 시간에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것이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살아가는 역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서 거듭나는 기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힘의 근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기도로 준비한 수련회에 모든 중 고등부 젊은이들이 참석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7월28일부터 30일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 많은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수련회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와 친교와 만남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오정식 목사(고등부 지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던진

**성령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무니만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파워 크리스천이 되겠습니까? 우리 서울교회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파워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하시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2003 중고등부 여름수련회 놓치면 후회합니다!

**임규현 목사(에바다부 지도)**

할렐루야,  
모든 만물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립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 되어 시원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찾고 싶지 않으세요? 오세요 우리 에바다부에서 수련회를 갑니다. 장소는 원주 치악관광농원이구요. 7월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입니다. 출발은 교회에서 28일 오전 9시에 합니다.

‘성령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라는 주제로 한국 농아선교회 회장인 속초중앙교회 농아부 이원홍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수화에 관심 있고 수화를 더 배우고 싶으신 분, 농인들과 주 안에서 함께 배우고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을 초대합니다. 많이 와 주십시오.

**믿음은 은혜 감사입니다**

**김요영(유년부 3학년)**

빨간색 빵에서 모의 성찬식을 갖으며 포도주와 맥을 먹었을 때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먹었어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고,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울었어요. 너무 회개할 것이 많았어요. 마음속의 큰 덩어리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예수님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감사해요’ 라고 기도 했어요. 그 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면서 살아갈래요. 저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마음, 다툼, 시기, 질투, 구타, 이런 것을 다 없애주세요. 예수님만 믿겠어요. 아멘

**고예원(초등부 4학년)**

이번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특히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천로역정」이었다. 「천로역정」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과정을 제시해 주었다. 만약 우리가 잠시의 즐거움이나 편안함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다. 내가 가장 아끼는 물건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았으니 앞으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될 것이다.

**이조은(대학부, 14교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나의 영원한 소망이고 목적이 되신 주님이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무엇을 하며 열매 맺고, 영광 돌리길 원하실까?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닮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위해 사는 것”

우리 대학부 모두의 관심사는 바로 이 비전이었다!!



있던 것 같았다. 하나님은 그 친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는 3박 4일간의 성령충만했던 모습 그대로..세상에서 신던 낡은 신, 내 경험과 지식으로 닳아버린 그 옛 신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신을 신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 쓰임 받는 우리 대학부 지체 모두가 되길...

**김한성 · 이은아 성도(신혼가정부)**

2003년 7월 17일 신혼가정부 수련회에 참석했다.

성령의 성령이여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남편과 내가 개개인이 아닌 부부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부부간 MBTI 성장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별히 '성막'에 관한 말씀들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신혼 가정부 수련회에 참석하기 전 남편과 나는 둘만의 여행을 원했었고, 신혼 가정부 수련회는 의무감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선배부부들의 가정을 통해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의 모델을 보았고, 영과 육이 성숙해졌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그 어떤 순간들 보다 즐겁고,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처음에는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말 못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세우신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며, “나도 주님 앞에 약하고 부족한 자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한다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며 우리는 기도했다. 또,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전체를 바라보며 현재를 결단하는 젊은이가 되어야 한다는 소근호 강사님과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좁은 시야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 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약한 세력을 물리치려면 역시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다.

무엇보다도, 이번 수련회는 에바다부에서 만난 지체 두 연이가 함께 했기에 더 아름답고 특별한 수련회가 될 수 있

# 그리스도가 계신 민족으로 바꾸기 위해

## 김광신 장로(제3기 단기선교팀 단장)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위해 부름 받은 22명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조국 땅을 떠나기 전에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맙지만 돈하고 미련한 입술인지라 이방 땅에 가서 어떻게 선교할까 걱정 근심만 쌓이기에 발길이 무겁고 두렵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의 선교 덕분에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대국은 못되었어도 이만한 국력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분명하고 세계적으로도 한국이 무시하지 못할 나라로 인정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나라 지도자들의 공로로 돌리기에는 그들은 너무도 모자라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나라치고 저주와 지옥을 맞본 나라가 없고 그 대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있음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복음을 받고 부강한 나라의 대열에서 있음을 감사하며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로 지정받아야 하고 그 일에 선봉적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지났습니다.

빛을 진 사람은 빛을 갚을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복음의 빛진 자로서 캄보디아에 그 빛을 갚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구원 계획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이 감격, 이 기쁨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과 걱정대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선교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갈 때 까지 마음 문만 열어 놓으십시오. 그리스도가 당신의 나라에 계시도록 적은 밀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캄보디아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축복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려고 합니다.

## 성공적인 선교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김은호

단기 선교사의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김광신

캄보디아에서 복음의 빛을 모두 갚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명수

풍성한 선교의 열매를 주께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명기

주님께서 분부하신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박숙

선교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건강(무릎, 어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명숙

많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김찬진

영적 권능을 가지고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이남성

선교에 두려운 마음이 없도록 인도하소서



최명열

캄보디아와 캄보디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음주 계속)

# 을 성탄에는 메시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

## 임상현 장로 (메시아연합 대합창 준비위원장)

매년 12월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한국교회들이 연합으로 약500명의 대형 찬양대를 이루어 험멜의 메시아를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서울교회는 올해로 36회 째가 되는 전통 있는 메시아 대연주회의 주관교회로 위촉받았고 이제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중연습을 진행하면서 좀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힘쓰던 각 찬양대는 이제 연합으로 메시아 찬양을 함께 연습하려고 합니다.

이는 먼저 이 메시아 대 연주회의 주관교회로서 장엄한 찬양을 주도할만한 찬양능력을 미리 습득하고 나아가 그동안 각 찬양대로 흩어져 봉사하던 서울교회의 찬양대원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기회가 될과 동시에 찬양수준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지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 새로이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원하는 성도들이 찬양대원양성반을 통하여 그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있음에 비하여 기존의 찬양대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보수교육이 없어 그 필요성을 요청하는 대원들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수개월간의 연습을 통하여 그와 같은 효과도 충분히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므로 서울교회 모든 찬양대원들께서는 이번 연습과정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시간이 중복되거나 다른 부서에서 봉사하는 관계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찬양대원양성반을 수료하지 못하여 찬양대원으로 임명되지 못한 새가족분들, 특별히 찬양에 은사가 많은 젊은 청년부, 대학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메시아 대합창의 대원으로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가까이 응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첫 연습은 8월2일(토) 오후 4시 501호실에서 있게 되고 저희 교회만으로 약 2개월 간 연습한 후 10월부터는 다른 교회의 찬양대원들이 합류하여 함께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기관별 식당 봉사자

7.27(주) - 모세 남선교회 8.3(주) - 도르가여전도회

## 동정

■ 이사: 12-10 이영중성도 경기도 용인시 성북동 성동마을 LG 빌리지 3차 314/904 전화 031-265-3149

8-2 이봉선 집사 강북구 수유3동 76-18 전화: 906-7220

■ 수상: 김지영 학생(고등부) 예가 전국학생콩쿨 바이올린부문 3등

■ 금주의 식사: 노문환 장로 · 장정화 권사 가정 (장모의 장례를 은혜중에 마치고)

■ 이성득목사 휴가(7.28~8.3)

대행-김은호목사(016-9755-1510)

## 이종운 목사 방송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름 수련회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 농촌 전도대 파송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